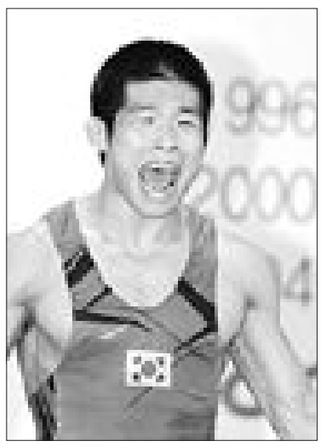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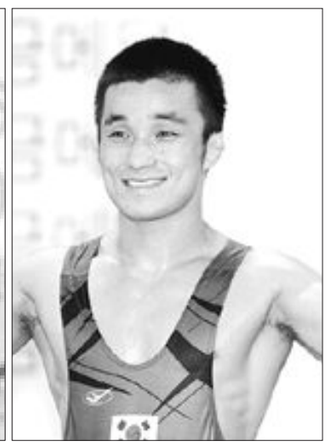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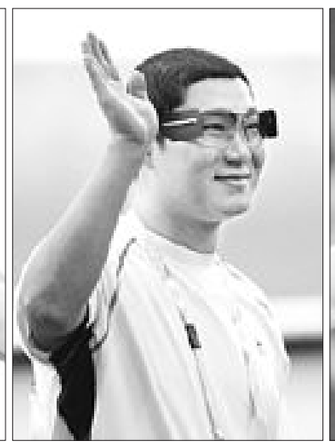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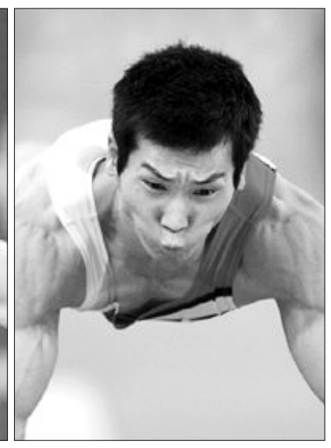

〈정지현 선수〉


〈박은철 선수〉


〈진종오 선수〉

〈김대은 선수〉


〈양태영 선수〉

오늘 또 '골든데이'

레슬링 박은철·정지현 동시 출격
50m 권총 진종오·펜싱 오은석 기대
체조 단체전 김대은·양태영 도전

"금메달 행진은 끝나지 않았다."

12일 한국의 메달박스 레슬링이 시작되면서 메달 전선에 힘을 보탠다. 레슬링 첫날인 12일에는 그레코로만형 55㎏급에 박은철(27·주택공사), 60㎏급에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정지현(25·삼성생명)이 동시에 출격한다.

4년전 아테네 올림픽 대회 때와는 달리 이번 올림픽 레슬링 경기는 하루 동안 결승전까지 모두 끝낸다. 박은철, 정지현 모두 이번 대회 금메달 후보인 만큼 또 한번 '골든데이'의 기쁨을 국민에게 선사할 수 있다.

사격에서는 한국 선수단에 첫 은메달을 전해줬던 진종오(29·KT)가 다시 메달에 도전한다. 50m 권총은 진종오의 주종목으로 아테네에서는 은메달을 땄고 지난 달 국내 전지훈련에서 점수를 꾸준히 끌어 올렸기에 기대를 걸 만하다.

특히 사격은 올림픽 주최국 중국이 독주를 자신하고 있어 진종오는 한국 사격의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남자체조는 예선 4위로 8강이 겨루는 단체전 결선에 오른 김대은(24·전남도청)과 양태영(28·포스코 건설)이 사상 처음으로 이 부문 메달을 바라본다. 남자 체조가 역대 올림픽에서 올린 가장 좋은 성적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거둔 4위다.

펜싱에서는 남자 개인 사브르에 오은석(25·상무)이 출전한다. 이 종목은 절대 강자가 없어 혼전이 예상돼 오은석의 선전 여부에 따라 메달 색깔이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여자단체전 올림픽 6회 연속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한국 여자양궁 선수들은 이날 개인전 싹쓸이를 위한 시동을 건다

단체전 우승 주역인 박성현(25·전북도청)과 윤옥희(23·예천군청), 주현정(26·현대모비스)은 9일 끝난 랭킹라운드에서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녹다운 방식으로 펼쳐지는 64강전에서 상위 시드를 받은 만큼 금메달로 가는 교두보는 마련해 놓은 상황. 랭킹 라운드 1위 박성현은 준결승까지 강자가 없어 느긋할 경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현정은 64강전을 통과할 경우 세계랭킹 3위 나탈리아 발리바(이탈리아)를 만나고 발리바를 꺾더라도 4위 유스티냐 모스피넥(폴란드), 5위 나탈리아 에르디니예바(러시아) 등 상위랭커들과 차례로 만날 가능성이 커 부담스럽다.

올림픽 무대라면 세계의 강자들과 대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더욱이 이미 단체전 금메달로 기세가 등등한 한국여자 궁사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여자 양궁 개인전은 이날 32강전까지 치러지며 결승은 14일 벌어진다. /연합뉴스

'스피도' 수영복의 힘? 수영 세계新 벌써 7개

각종대회 이어 올림픽서도 신기록
박태환도 반신 수영복 입고 출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이 터져나오고 있다.

11일 오전까지 나온 세계 신기록은 모두 7개. 처음 스타트를 끊은 선수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였다. 펠프스는 10일 오전 남자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03초84로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베이징올림픽 수영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여자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스테파니 라이스(호주)는 4분29초45로 새로운 세계기록 보유자가 됐고 같은 날 저녁 계영 400m 예선에 출전한 미국 대표팀이 3분12초23으로 세계 기록을 줄였다.

11일 오전에도 여자 배영 100m 준결승에 출전한 커스티 코벤트리(짐바브웨)는가 58초77로 골인하며 나탈리 쿨린(미국)이 보유했던 기존 기록(58초97)을 0.20초 단축했다. 이어 일본 수영의 희망 기타지마 고스케가 남자 평영 100m에서 58초91로 우승하면서 라이벌 브렌든 핸슨(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록(59초13)을 0.22초 줄였다.

남자 계영 400m 결승에서는 호주 대표팀의 첫번째 영자 에먼 설리번이 47초24에 골인하면서 알랭 베르나르(프랑스)가 보유한 47초50의 세계 기록을 0.26초 앞당겼다. 계영에서 첫번째 영자의 기록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된다. 혼계영 400m의 경우에는 첫번째 배영 영자의 100m 기록이 공식으로 남는다. 이어 마이클 펠프스, 가레트 웨버-게일, 쿨런 존스, 제이슨 레작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팀이 3분08초24로 우승하면서 전날 예선에서 냈던 기록을 무려 3.99초나 앞당겼다.

특이한 점은 세계기록을 수립한 선수들이 모두 스피도의 새 수영복 '레이저 레이서(LZR Racer)'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출시된 뒤 각종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양산해냈던 이 수영복이 올림픽에서도 신기록 잔치를 이끌고 있다.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수영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19·단국대)도 레이저 레이서 원단으로 만든 반신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나서고 있다.

금을 향해 둘이 하나되어… 11일 베이징 국립수상경기센터에서 열린 남자 10미터 싱크로나이즈 다이빙 경기에서 독일의 패트릭과 클레인이 완벽한 호흡으로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경기를 펼치고 있다.

기타지마 평형 100m 세계新 …올림픽 2연패

수영(경영)

일본 수영의 영웅 기타지마 고스케(사진·26)가 평영 100m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올림픽 2연패를 이뤘다. 기타지마는 11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평영 100m에서 58초91에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두드리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아테네올림픽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기타지마는 올림픽 2연패를 이루며, 전날 박태환(19·단국대)이 자유형 400m 타이틀을 차지한 것과 함께 아시아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기록도 놀라웠다. 강력한 라이벌인 브렌든 핸슨(미국)이 2006년 8월 작성한 59초13의 세계기록을 0.22초 단축했다. 200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59초78로 이 종목 세계 기록을 세운 뒤 이듬해 7월 핸슨에게 기록을 빼앗겼던 기타지마는 4년 만에 새로운 세계 기록 보유자로 올라섰다.

이형택 1회전 탈락

테니스

이형택(32·삼성증권)이 2008 베이징올림픽 테니스 남자단식 1회전에서 패했다. 세계랭킹 96위 이형택은 11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남자단식 1회전에서 라파엘 아레발로(447위·엘살바도르)에 1-2(6-4 3-6 4-6)로 져 탈락했다.

먼저 첫 세트를 따내며 순조롭게 출발한 이형택은 비로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사이 리듬을 잃었고 6월에 다친 무릎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했다. 이형택은 3세트 3-3으로 맞선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뺏긴 뒤 끝내 패하고 말았다. 아레발로는 이날 드미트리 투르소노프(29위·러시아)를 2-0(6-4 6-2)으로 완파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와 2회전에서 만나게 됐다.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도 포티토 스타라체(74위·이탈리아)를 2-1(6-2 3-6 6-2)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올림픽 소식

北 유도여왕 계순희 금 도전 실패

유도경기장 한반도기 물결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 공동입장이 무산되면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와 인공기를 앞세워 따로 따로 입장했지만 유도 경기장 관중석에 독도가 선명하게 새겨진 한반도기 물결이 넘실.

11일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된 유도 남자 73㎏급과 여자 57㎏급 경기에는 왕기춘(용인대), 김철수와 강신영(수서경찰서), 계순희 등 남북 선수들이 사이좋게 출전.

본부석 건너편 2층 스탠드에 자리를 잡은 '2008 베이징올림픽 코리아응원단' 70여명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한반도기 수기를 손에 들고 16강전에 나선 북한의 김철수와 8강 경기에 나선 왕기춘을 힘차게 응원.

2회전서 佛 선수에 절반패

○…북한의 유도 여왕 계순희(29)가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도전에 실패.

계순희는 11일 베이징 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여자 57㎏급 2회전에서 바버라 하렐(프랑스)에 절반패로 무릎.

계순희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48㎏급 금메달을 따낸 뒤 2000년 시드니올림픽 52㎏급 동메달, 2004년 아테네에서는 57㎏급 은메달을 차지.

96세 할머니 대장정 응원

○…올해 96세가 된 중국 할머니가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경기를 보기 위해 손자가 끄는 삼륜 자전거를 타고 무려 2천400㎞가 넘는 길을 달려 베이징에 입성해 큰 관심.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샤오 할매'라는 별명을 가진 샤오신추이(96) 할머니는 손자인 류샹후이가 페달을 밟은 삼륜자전거에 실려 중국 중부 허난성을 출발, 무려 2천400㎞의 여정을 견디면서 마침내 지난 10일 배드민턴 경기가 열리는 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에 도착.

빌게이츠 올림픽 현장 찾아

○…직장을 잃고 한가해진 빌 게이츠가 2008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현장을 찾아 눈길.〈사진〉

그는 11일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배드민턴 경기가 열리는 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을 찾아 남자 예선 3조 경기를 지켜보며 즐거운 한 때.

빌 게이츠는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해 그의 아내와 함께 빈곤 퇴치 등 자선사업에 전념.

■ 오늘의 올림픽

◇12일(화·이하 한국시간)

▲양궁 = 여자 개인전(11시·올림픽그린 양궁장) ▲배드민턴 = 혼합복식, 남자 단식, 복식(11시·베이징 공과대학 체육관) ▲복싱 = 51㎏급, 54㎏급 예선(14시30분·베이징 노동자 체육관) ▲펜싱 = 남자 개인사브르(11시·국가컨벤션센터 펜싱홀) ▲체조 = 남자 단체전(11시·국가 ▲하키 = 여자부 한국-네덜란드(21시30분·베이징올림픽 그린 하키경기장) ▲유도 = 여자 63㎏급, 남자 81㎏급(13시·베이징 과학기술대 체육관) ▲조정 = 남녀 경량급 더블스컬(17시·순이 올림픽 조정-카누 공원) ▲요트 = 남자 레이저급, RSX급, 470급(14시·칭다오 올림픽요트센터) ▲사격 = 남자 50m권총(10시·베이징 사격장) ▲수영 = 남녀 자유형 200m 결승 등(11시·국가아쿠아틱센터) ▲테니스 = 남자단식 2라운드(11시30분·베이징 올림픽그린 테니스코트) ▲역도 = 남자 69㎏급, 여자 63㎏급(11시·베이징 항공항천대 체육관) ▲레슬링 = 그레코로만형 55㎏급,60㎏급(10시30분·중국농업대 체육관)